

연중 제5주일

기도서 P. 344 C해

제1독서(이 사 6, 1-2, 3-8)  
제2독서(요린전 15, 1-1)  
복 음(루 가 5, 1-11)

# 숲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믿음에 대한 순종과 사명감이다

### 이 상 섭 신부

첫째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베드로는 밤새 도록(밤 :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 자기 동료들과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아침에 더구나 몹시 피곤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무시하고 전폭적인 신뢰와 순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 결과 풍성한 어획을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하느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크나 큰 성과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경험을 초월하여 풍성한 결과를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다.

둘째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도덕적 수준이다. 종교적·경제적 수준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성덕이나 도의적·종교적·경제적인 면이 합당치 않아도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셋째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명이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례 받기 전과는 달라져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나의 생활 하나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나와 함께 생활하는 이웃은 주님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을 낚는 평신도로서의 참 어부가 되는 것이다.

네째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성과, 베드로처럼 성공이다. 실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성공의 여부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의 일은 순전히 자연적인 척도로 측량 될 것도 아니며,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을 뿐이며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생활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되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성과는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서……

<김제 천주교회 보좌신부>



## 그러나 선생님께서서...

층다. 날씨도 차가울고 마음도 썰렁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산유국(產油國)을 탔인가, 아니면 정치 탔인가? 왜 정부당국은 물건값은 올려주는데도 파는 사람들은 "중전가격대로 팝니다"라고 써 붙이는가? 어찌서 "대할인 특매" 광고가 나붙는가? 공인된(?) 거짓말—"믿지도 판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연탄가격을 계속 동결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 교통요금을 동결할 것입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런데도 연탄값은 6월부터 또 올린다니, 결국 시내버스 요금도 조만간 또 올라가겠다는 말이 아닌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요새말로 아리송하기만 하다.

현대의 가장 큰 병폐는 불신(不信)이다. 험껏 말했는데도 "웃기네"라는 응답을 보이는 것은 바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엄마 아빠가 바른것을 말해도 그 어릴것들이 "공갈마" 하고 코웃음을 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들 못믿어 하니 끝내는 "진짜 진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서 지나친 말일까?

우리 사회에 하루 빨리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야겠다. -깊은 데로 쳐가서 모두들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시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당국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때 국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의사의 지시를 100% 받아드릴 수 있을 때 환자의 병은 나을 수 밖에 없다. 제발 좀 믿고살자.

## 숲 정 이 산책



(시조)



### 천 제 연 폭 포

김 환 식

하느님

「말씀」은 물이 되어  
백록담에 담겼읍니다.

산줄기따라  
마음로 스며들어  
마음과 마음에

이르고,  
타일러도  
귀 밖으로 들었읍니다.

불기등보다  
더 「뜨거운 말씀」으로  
정수리를 마구 내리 칩니다.

바위도,  
숲도,  
산도 떨었읍니다.

소쿠라치고,  
소용돌며,  
또 타이르고

「말씀의 빛」은  
물보라 속 무지개 타고  
하늘나라로 떠나 갑니다.

### \* 등 정(動靜) \*

금산 본당의 사도회 임원(부회장)인 김환식(金桓植, 바오로) 형제가 그간 같이 닭아 모은 시조 47수를 한데 엮어 첫 시조집 **소복무(素服舞)**를 펴냈다.

책 머리에 이태극씨는 이렇게 적고 있다. —「오랜 교단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신심(信心)과 인간애(人間愛)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삶의 실체를 생각해 본 그때 그때의 감회들을 진실하게 시조로 엮어 본 작품을 가려…」

김환식 형제는 가톨릭인답게 1971년 4월에 <가톨릭 소년>지에 신인으로 추천을 마쳤고, 77년에는 <시조문학>의 추천도 따냈다. 현재 금산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형제는 푸르실리스트이기도 하다.

### 희 소 식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면 절년조가 가축, 부업, 화조식품용으로써 대량 생산되어 획기적인 선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의 연락 바랍니다.

특 징

노천사육이 가능하며 질병이 없으며 닭에 비해 성장율이 빠르며 초식동물로써 사료비가 40% 절감할 수 있음.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내정부락

절년조 사육장 요 식

### □ 단상 ④

### 꽃은 피어나면서 있다

최 규 환(알벨도)

인간은 생성 과정이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법이 없다. 새로 낳고 자라고 발전 소멸한다. 그리하여 항상 새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하고 값이 있는 것이다.

꽃이 있다. 새가 나무가지에 앉아 있다. 이와같이 그저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 꽃은 피면서 있고 혹은 시들면서 있고(생성중에 있고), 새는 잠자면서 있고 지저귀면서 있다. 바위는 부스러지면서 있고, 깊은 못은 샘물이 솟아 오르면서 있고 혹은 메워지면서 있다. 북극이나 남극에서 사는 물고기는 한류를 따라 수만리 꼬리를 치면서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고, 적도 가까이 사는 물고기는 난류를 따라 고위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에서 기러기가 떼지어 날아오고, 여름이 가까와 오면 타일랜드(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제비가 날아온다.

이렇게 인간이 생성의 과정을 밟고 새로워지는 것은 하느님의 완전(完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완전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다.

(신태인 사도회장)

### \* 단신(短信) \*

#### □ 구정 활동 위령미사

우리네는 구정이 되면 먼저 가신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며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 나는 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제사하고는 커리가 먼가?

교회에서는 이날 <함동 위령미사>를 봉헌한다. 자손된 도리를 다하자. 이날에 봉헌되는 미사에물은 전역이 <순교자 현양사업>에 쓰여진다. 조상들을 위하고 순교자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 이 미사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 보다 뜻있는 봉헌을 하자.

### \* 알 림 \*

교구보(敎區報) 숲정이가 보다 폭넓은 <만남의 장> 구실을 하기 위해 동정난을 새로 냅니다.

생활 근거지가 바뀌었다던지, 가게를 새로 열었다던지(신장개업 등), 책을 냈다던지 하는 일 등이 있을 때에는 사도회장님께서 간단히 메모해서 보내주시면 숲정이에 실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실에서 알림)

### 원 아 모 집 (어린이집)

5세~6세, 점심 제공 오후까지

장소: 한국은행 맞은편

접수: 1980년 2월 15일 까지

문의 전화: ② 5978

김 귀 복 (모니카)

# 공소도 이제는 외롭지 않다!!

—공소 사목 위원회 활동을 찾아서

우리 교구는 농촌 교구이다. 도시의 몇몇 본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소(公所)를 가지고 있다. 신자로서 교회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도 골짜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죄 아닌 죄 때문에 매일 미사도 영성체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바로 공소 교우들의 그것이다. 근년에 들어와 많은 신부님들의 관심 속에 그래도 외로움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멀기만 하다.

교구에서는 제작년부터 「공소 사목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우선 1차로 해낸 일이 <성가집>제작. 교우들의 부담을 줄이다보니 책의 크기가 작아서 글씨를 읽기에 부담을 느끼는 형제자매도 많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성가가 불리어졌던가.

금년에는 공소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박 2일이기는 하지만 단 하루 코스도 짧은 교육이 원하는 공소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김병운·김종진 신부), ② 복음의 생활화—성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소순형·박병준 신부), ③ 말씀의 전례—공소에 걸 중의 강론의 실제(문규현·김태운 신부), ④ 기도—공소예절상 필요와 관련(박창신·전대복 신부), ⑤ 복음과 현실—신자들의 현실참여(박창신·문규현 신부), ⑥ 농민회 교육(농민회에서 담당)—이 그 전부이다.

지금까지 신태인 본당의 거산 공소, 한들 본당의 장재리 공소, 여산 본당의 마전 공소, 고산 본당의 수청리 공소에서 교육이 끝났다. 앞으로는 2월 11~12일...신태인 본당의 진흥리 공소와 부안 본당의 등용리 공소, 2월 21~22일...정읍 본당의 등촌 공소와 고창 본당의 동해원 공소에서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이란 원래가 어려운 일이다. 교육을 받는 쪽에서는 피곤함과 자기 사생활 포기 of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불비한 교육장 조건—예를 들면 요즈음 같은 추위를 막아낼 수 있는 난방시설 등—, 불편한 교통과 잠자리 문제, 물을 갈아먹는데서 오는 건강상의 악조건, 책임진 본당을 비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 등 손뼉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이다.

부디 여덟분의 「공소 사목 위원 신부님들」(위원장 김병운·위원 김종진·박창신·문규현·전대복·김태운·소순형·박병준 신부)과 농민회 회원들이 건강하기를 빌 뿐이다. 아울러 교육을 받는 공소의 형제자매들의 열렬한 협조도 크게 요망된다. 하나 더욱심을 부린다면 해당 본당의 사도회 임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교육 현장을 찾아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

내적 쇄신의 밑바탕은 이렇게 해서 다져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아끼지 말자.

## 요심이 (341) 김병운



☐ 여성 여러분에게  
 뜻을 선사합니다☐  
**송옥의 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열)  
 전화 ③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이찰수(바오로)  
 전주 남문열  
 전화 ③ 8188 (자 ③0369)

### ☐ 신규 직원 채용공고

- 모집부문: 일반(사무)직 약간명
- 응시자격: 가. 만30세이하의 남자로서 병역을필했거나 면제된자.  
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1통  
나. 소명합판사진(3×4) 2매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라.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마. 병적증명서 1통  
바. 주민등록 등본 1통  
사.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통
- 제출기간: 80. 2.5~15. 17:00
- 서류접수처: 당조합 총무과 (☎ 0191~0194)
- 전형방법: 가. 제1차(필기): 상식 논문, 주산(천포산)  
나. 제2차(면접): 1차합격자에한함
- 전형일시  
가. 제1차시험: 80. 2. 21(목)10시  
나. 제2차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 문의  
 전주 대건 신용 협동 조합  
 이사장 양윤모

### 가톨릭 방송안내 및 원고모집

- 사색의 오솔길
  -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밤12시 15분
  - 담당: 나궁렬 신부
  - 원고내용: 젊은이들의 생활교화와 그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 원고지 5매
  - 연락처: 전주 노승동성당
- 생활종교
  - 방송국 및 방송시간  
서해방송 주일 아침 7시 40분 매월 1회
  - 담당: 김환철 부주교
  - 원고내용: 생활속에서 신앙체험담, 원고지 12매
  - 연락처: 전주교구청

\* 방송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함.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제 3차 공소(5·6지구) 지도자 피정...10일(일) 오후 2시~11일(월) 가톨릭 센터에서
    - 참가자...A. 5·6지구 해당 분당(남원, 상관, 순창, 임실, 금산, 무주, 장계, 장수, 진안, 한들) B. 1·2·3·4·7지구 공소지도자 피정시 불참자
    - 접수시간...10일 오후 1시30분~2시(※ 2시 정각에 시작)
    - 1인당 참가비...전주시내(4천원), 군산·이리시내(3천5백원), 금산·무주·장계·장수·한들(2,500원) 순창·원평(2천원), 기타(3천원)
  - 제 5차 공소 교육일정(교구 공소사목 연구위원회 주관)...2월 11일~12일  
진흥리 공소(신대인), 등용리 공소(부안)
  - 여자 켈 모임...2월 17일 오후 2시, 성심여고 강당에서
  - 분당 수녀 전교사 피정...2월 13일 오후 1시30분 접수~14일, 가톨릭 센터에서
  - 가톨릭 능민회 총회 안내...2월 19일 오후 1시~20일 정오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참가비-1인당 1,500원 대상-1개 부회에서 3명, 연합회 임원, 역대임원, 분회실질 가능 지역의 회원
  - 재속삼회 청장년 협회 1일 피정...10일(일) 오후 1시~5시 노충성당 피정의 집에서
- 군인들을 위한 묵주성금...무주 익명 묵주 10개

(중양)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성태영
보좌 신부	정영희
사도 회장	김병구

- 꾸리아 월례회: 10일 오후 2시(강당)
  - 구정합동 위령미사: 16일 오전 6시30분, 오후 7시30분 예불봉투는 사무실에
  - 가정방문: 20일 오후 2시부터 실시 예정
  - 예비신자 교리: 24일부터 시작 예비신자 신청서는 사무실에 전신자 활동 바람
  - 80년도 교무금 증신입해 주세회
  - 사순절 대 신앙강좌: 주제-그리스도교 인생관, 강사-정말용 신부, 광주 신학대학 철학교수 2월 23일-신앙관, 3월 1일-1인관, 6일-교회관, 8일-세계관, 15일-역사관, 22일-구원관
- 지난주 봉헌금: 318,375원

(노충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나정
보좌 신부	박영준
사도 회장	박영준

-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성령세미나 개최: 18일(월)~23일(토)까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구정합동 위령미사 봉헌: 2월 16(주)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해 한가정도 빠짐없이 미사 봉헌합니다
  - 80년도 애령회 임원: 회장-전길남, 부회장-이대련, 김명수, 총무-전옥진, 서기-김계정, 감사-이대환, 장성복
- 이상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2,031원 구라주일헌금: 162,01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 사도회 월례회: 반편성 및 구역장 반장 임명전
  - 예비자 교리: 오늘부터 예비자 인도는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구정합동 위령미사: 토요일 저녁 7시 빠지지 마세요
  - 안내에 협조합니다 반석회, JOC 회원들의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 주일학교 개회 17일부터 일요일 오후 2시에 교리, 3시에 미사
  - 젊은이 성가연습 후원: 반석회 20세~39세 대상: 분당내 남녀 젊은이, 반주 및 지도 유글라라
  - 분당내 신자로서 세대주는 모두 애령회원입니다. 애령회에 가입하시고 활동에 앞장섭시다
- 지난주 봉헌금: 200,67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김응식 형제대)
- 출판물 보급주일: 다음주일(특별헌금 있음)
- 재의 수요일: 다음주 수요일 20일(단식과 금육) 집에 있는 성지가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 제 2차 사도회 임원 피정: 22~23일

- 양규철, 박상기, 유덕열, 이충원, 노성경, 조영호, 최용구, 최순석, 유종소, 염규철, 허순덕, 안경례
  - 구정합동 위령미사: 16일(토) 나누어드린 봉투에 꼭 뚜껑 써서 15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람
  - 대학생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분당내 모든 대학생 전원 참석 바람)
  - 복자 신용조합 정기총회: 2월 24일 공식미사후, 강당 모든 조합원은 도장을 가지고 꼭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276,62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혈수

- 반장 월례회: 공식미사 후
  - 주일학교 졸업식: 공식미사중에
  - 중·고생 신앙강좌: 매주 토요일 6시미사 후
  - 구정 합동미사: 2월 16일 아침 6시 30분. 오전 10시 (주일학교·중·고생 미사 없음)
  - 가정방문: 2월 12일(화)-5만, 31일(수)-6만
  - 성지가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람
  - 감사: 월중행사표 출판 박석근(회지노) 기증
- 지난주 봉헌금: 130,790원

(송정)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주일학교 자모회 월례회: 2월 12일
  - 청년회 정기총회: 2월 11일 오후 6시30분
  - 성모회 월례회: 2월 17일
  - 거제도 교무금을 약속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축기금 내주신분: 마인드 콘트를 지도선생 윤팔호(3만원), 백옥남(5천원), 김용대(5만원)
- 지난주 봉헌금: 173,75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 자모회: 10시미사 후
  - 장우회: 저녁미사 후-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람
  - 성가정회: 2월 11일 오후 2시 임원개원: 회장-은영은(세시리아), 부회장-조미령(로사리아), 총무-김규례(모니카), 회계-송윤자(유리안나)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2월 17일 공식미사 후 (주일학교 교무실)
  - 구정 합동미사 가정봉헌: 사무실에서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314,64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 중·고학생 미사: 오늘 오후 3시(매주일)
  - 구정합동 선영 위령미사: 16일 아침 7시
  - 미사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잘 지킵시다
  - 레지오 연춘친목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학생회 임원개선: 회장-이재훈, 부회장-박미숙, 총무-김정근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79,036원 교무금: 143,000원 어린이헌금: 3,250원